

5·18 세계 인권운동 이끈다

2 '광주정신' 심는 아시아 청년들

20개국 85명 민주화 실천 앞장

'광주인권학교'서 배워 자국에 적극 전파
'5·18, 광주만이 아닌 아시아 정신으로'

광주 5·18 정신을 통해 자국의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는 청년들이 있다. 5·18 기념재단이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광주아시아인권학교' 출신 청년들이 바로 그들이다.

광주아시아인권학교에는 지난해까지 네팔,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등 아시아 20여개 국가 85명의 청년들이 다녀갔다. 광주인권학교는 5·18을 통한 한국 민주주의 정착과정을 아시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네트워크의 중추인 셈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화를 열망한 광주 시민과 학생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불의와 싸운 거대한 항쟁입니다. 광주 정신은 바로 민주화라는 꿈을 가진 아시아 민중들에게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현재 방글라데시 인권운동 단체 '가난한 자들의 휴식처(Shelter for the Poor)'에서 활동중인 아부 라이한 알 비루니(44)씨는 "지난 2005년 광주인권학교에서 배운 5·18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표현했다. 10여일간 광주에서 벌어진 화살을 온몸으로 막은 광주 시민들은 물론, 항쟁 이후 민중의 힘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법정에 세운 점에 큰 감명을 받았던 것이다.

방글라데시 도시 빈민을 위해 저비용 주택건설과 교육 등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알 비루니씨는 "광주에서 받은 22일간 교육을 통해

민주화에 대한 꿈을 더욱 키우게 됐다"고 말했다.

알 비루니씨는 "인터넷을 통해서 와서 배우며 느꼈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광주인권학교에서 배웠던 광주 정신과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의 활동상을 방글라데시로 돌아와

서 잘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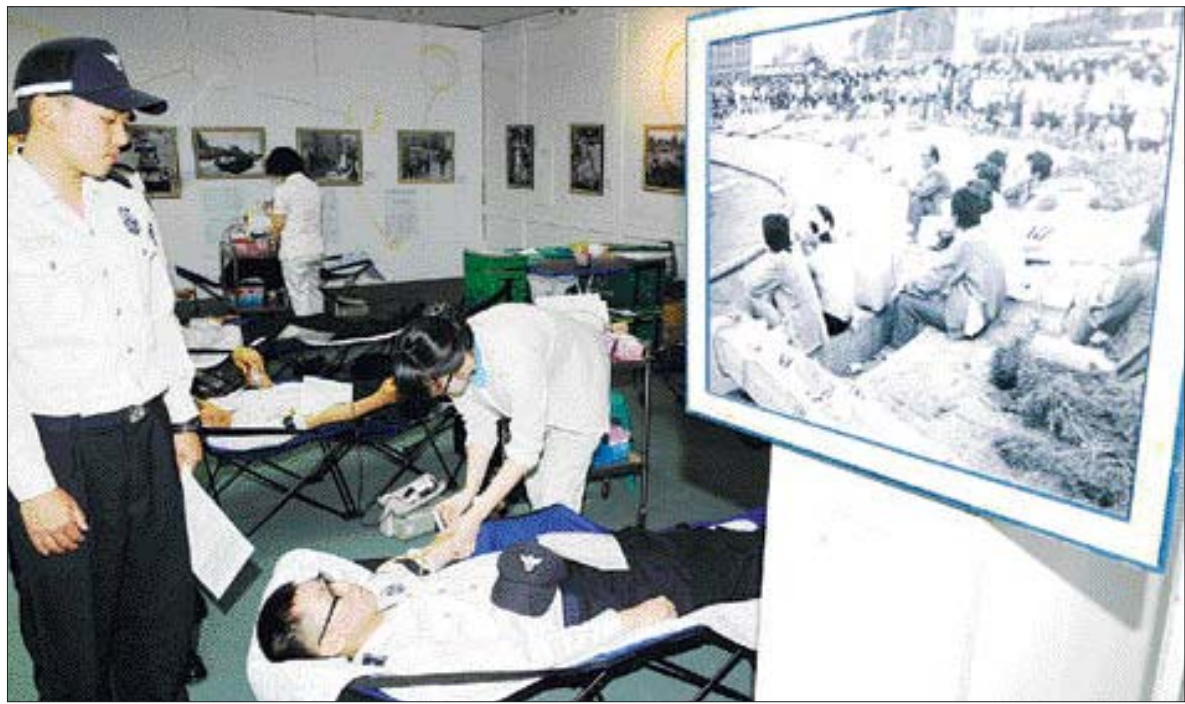
지난해 광주인권학교를 다녀간 방글라데시 여성 테한 이(24)씨는 현재 청소년교육단체인 '엠펙워'(Empower)에서 활동중이다. 이씨는 "5·18은 광주만의 것이 아니라 민주화를 열망하는 아시아 민중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5·18 기념사업의 전국화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통해 더욱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의 인권 단체인 포럼아시아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권 파카 느

손(여·26)씨는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의 전국화 또한 시급하다고 말했다.

느감손씨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항쟁이었지만 광주시민들 외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광주를 배우기 위해 수만리 떨어진 나라에서 활동가들이 올 정도로 훌륭한 항쟁이었던 것만큼 광주 시민들이 더욱 나서서 5·18을 알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필성기자 kps@kwangju.co.kr



그 날 기리며 헌혈

5·18민주항쟁 28주년을 5월 1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에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5·18 당시 광주시민들이 부상자들을 위해 헌혈에 나선던 정신을 기리고자 마련됐다. 옛 전남도청은 80년 5월 시민군들의 최후 격전지로 5·18 주요 사적지다.

5·18민주항쟁 28주년을 5월 1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에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5·18 당시 광주시민들이 부상자들을 위해 헌혈에 나선던 정신을 기리고자 마련됐다. 옛 전남도청은 80년 5월 시민군들의 최후 격전지로 5·18 주요 사적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주월동 집단매장지 5·18 희생자 가능성 낮아

공동묘지 인 듯

광주항쟁 희생자들의 집단 매장지로 추정됐던 남구 주월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한 2년 4개월 동안의 발굴조사 결과 5월 희생자들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남구 주월동 모 아파트 집단매장지(4만6천여㎡)에서 발

굴된 유골을 감식한 결과 피장자들이 질병 등으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장지도 공동묘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중태(전남대 법의학화) 교수를 비롯한 법의학자들은 "발굴한 137개 유골 가운데 60개 유골을 1차 조사한 결과 유골에서 실탄이나, 구타 등으로 인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

로 미뤄 5월 희생자들이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또 다양한 연령층의 유골이 발굴됐으나, 동일한 시기에 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날 말 "5·18 행렬자 사실조사위원회"에 이 내용을 보고한 뒤 남구 유골에 대한 추가 분석 작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북구 용전동

공동묘지(10여기), 북구 효령동 우곡저수지 쌍샘골 일대 묘지(10기)가 5월 희생자들의 집단 매장지로 보인다는 최근 제보에 주목하고 있다.

용전동 공동묘지는 80년 5월25일 계 군용 트럭이 주차된 뒤 10기의 무덤이 새로 조성됐으며, 쌍샘골 일대는 제보자가 광주항쟁 당시 난을 깨려다가 발견한 가매장지라는 것이다.

시는 제보장소에 대한 1차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5·18 행렬자 소재찾기 사실조사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뒤 본격 발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노인복지시설 허가 의혹 관련
광주시의원·공무원 압수수색

경찰이 광주지역 노인복지시설 허가 과정과 관련, 로비 의혹에 연루된 광주시의원과 담당 공무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3일 광주시의회 김모 의원이 광주시의 노인복지시설 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 의원과 광주시청 오모 전 국장 등 관련 공무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또 김 의원 자택과 함께 시설 허가를 둘러싸고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N 복지법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김 의원과 오 국장 등 공무원 4명의 업무용 컴퓨터를 비롯, 업무일지 등 관련 서류 일체와 통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

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컴퓨터 파일과 서류들을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김 의원이 N 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받게 된 과정에서 제기된 로비 의혹을 추궁하는 한편, 실제로 김 의원이 오 국장 등에게 돈을 건넸는 지를 가리기 위해 계좌추적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 국장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지난 3월 31일자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광주시로부터 장남 명의로 N 복지법인 허가를 받았으나 함께 투자했던 A(여·47)씨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으며, A씨는 김 의원의 로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어청수 경찰청장 오늘 광주 방문

이 대통령 5·18 기념식 참석 여부 주목

어청수 경찰청장이 14일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28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와 관련, 주목을 받고 있다.

어 청장은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최병민 광주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장 직원과의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5·18 민주묘지를 경찰 간부들과 함께 참배한 뒤, 5·18 기념식 행사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어 청장은 이날 민주묘지 주

모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28주년 기념식 경호대책을 광주경찰로 부터 보고받을 예정이어서 이 대통령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때문에 어 청장의 이번 광주 방문은 치안현장 방문과 5·18 행사장 점검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5·18 기념식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온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지법 국민참여재판 희망 잇따라

오늘 두번째 재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피고인들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치러진 호남지역 첫 국민참여재판 이후 2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3건의 국민참여재판은 전국 법원 중 처음이다.

광주지법은 우선 14일 201호 법정에서 제3형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 심리로 올해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7)씨. 김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0시 10분께 순천시 황전면 자신의 집에서 지

인 허모(47)씨와 다투던 중 흉기로 목을 찢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또 지난 4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가 지난달 30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해 이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조계는 이처럼 강력 사건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잇달아 희망하고 있는 것은 배심원들의 감성적이고 온정적인 양형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되고도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되는 등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505) 김장두



다 좋은 건국 선망지대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암관영

욕실한 여성 착각, 술 취해 폭행

상나팔

50대 남성이 공원을 걸어가던 여성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해 폭행했다가 경찰행.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P(52)씨는 지난 4월 밤 9시께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공원 놀이터 앞에서 걸어가던 K(여·66)씨의 뒷머리를 잡아채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P씨는 광주공원에서 옷놀이를 하던 중 게임에 함께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성이 옷놀이 문제로 자신에게 욕을 하고 달아나자 쫓아가던 중 뒷모습이 비슷한 K씨를 욕설한 여성으로 착각해 때렸다는 것.

○P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듣자 정신이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 /광필성기자 kps@kwangju.co.kr

신협 가족사랑 캠페인. 광명평가 전국 1위 기념. 6.56% 연이자율. 7.65% 연이자율. 관음신용협동조합. 총장로 4개 광주지점. 224-1883, 1021

보람상조와 함께 말 새가족을 모십니다. 보람상조 남광주 지점. 010-9586-8114